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도시별 상반기 GDP 발표...베이징시 1위 차지

- 최근 중국내 주요 도시들이 상반기 경제실적을 발표하였으며, 베이징시가 상하이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선전시는 3%의 성장률로 3위를 유지, 충칭시가 4%의 성장률로 광저우시를 추월하고 4위로 등극하였음
- 1~5위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광저우로 GDP 총량은 각각 1조 9,352억 위안(약 375조 원), 1조 9,349억 위안(약 375조 원), 1조 5,017억 위안(약 291조 원), 1조 3,512억 위안(약 262조 원), 1조 3,434억 위안(약 260조 원), GDP 성장률은 각각 0.64%, △3.75%, 3%, 4%, 1%으로 나타남
- 6~10위는 쑤저우, 청두시, 항저우, 우한, 난징으로 순위가 지난해와 일치하며, GDP 총량은 각각 1억 962억 위안(약 212조 원), 9,966억 위안(약 193조 원), 9,003억 위안(약 174조 원), 8,904억 위안(약 173조 원), 난징 7,879억 위안(약 153조 원)으로 집계됨
- 11~20위는 텐진, 닝보, 칭다오, 정저우, 우시, 창사, 난통, 포산, 취안저우, 지난임. 텐진시는 경제 성장이 저조하여 11위에 머물러 있고, 이와 반면 닝보와 칭다오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정저우는 GDP 총량이 전년 동기대비 425억 위안(약 8조 원) 증가하여 증가량이 전국 6위를 기록하였음

자료원 : 중국신문주간

http://www.ce.cn/xwzx/gnsz/gdxw/202208/14/t20220814_37960743.shtml

2 中, 올해 6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270곳 건설

-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하였음. 한편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속화되어 올해 6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270곳이 건설되었음

- 중국은 글로벌 최대 수소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은 3,300만 톤에 달하며,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에 따르면 2025년 연료배터리 차량 보유량은 5만 대로 추산되며 수소충전소 건설을 확대할 계획임
- 중국 수소에너지연맹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총 659곳이며, 이 중 중국의 수소충전소 수량이 1위를 차지하였음

자료원 : 인민일보

http://www.ce.cn/cysc/ny/gdxw/202208/14/t20220814_37960801.shtml

3 中, 7월 택배 업무량 8.0% 증가한 96.5억 건 달성

- 중국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1~7월 택배 업무량은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한 609억 건, 택배 수입은 3.7% 증가한 5,880억 위안(약 114조 원)이며, 이 중 7월 택배 업무량은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한 96.5억 건이고, 택배 수입은 8.6% 증가한 898억 위안(약 17조 원)임
- 업무 유형별로 보면 1~7월 타지역 택배, 도시내 택배, 국제 택배 업무량 비중은 각각 86.3%, 12.0%, 1.7%, 택배 수입 비중은 각각 49.1%, 6.6%, 10.8%임
- 지역별로 보면 1~7월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업무량 비중은 각각 77.1%, 15.4%, 7.5%, 택배 수입 비중은 각각 77.4%, 13.3%, 9.3%로 집계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8/15/content_25933995.htm

4 中, 7월 자동차 판매량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1.5%, 29.7% 증가한 246만 대, 242만 대이며, 이 중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0% 증가한 62만 대, 59만 대로 집계됨
- 1~7월 자동차 누적 생산량과 판매량은 1,457만 대, 1,448만 대로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0.8% 상승한 반면 판매량은 2.0% 감소하였음.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28만 대, 319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0% 증가했으며 시장점유율은 22.1%로 나타남

- 자동차 취득세 인하 정책과 지방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자동차 생산업체와 경소상의 판촉 강화로 7월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월보다는 적지만 역대 동기 최고치로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전 추세임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xwzx/gnsz/gdxw/202208/12/t20220812_37956038.shtml

5 中, 7월 중소기업발전지수 88.3...기업 경영 양호

- 중국중소기업협회는 올해 7월 중소기업 경영상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7월 중국 중소기업발전지수는 88.3으로 집계됨
- 조사대상 기업 중 공장 가동률 75~100% 사이 기업이 43.7%로 전월 대비 1.75 포인트 상승했고 75% 미만인 기업이 47.8%로 전월 대비 2.60 포인트 하락함
- 업종별로는 교통운수·우정·창고업, 도소매업 지수가 각각 0.1, 0.2 포인트 상승했고 건축업과 숙박·요식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남. 이 중 건축업, 교통운수·우정·창고업, 도소매업은 연속 3개월간 상승세를 보였음
-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다소 완화됨. 글로벌 시장 수요 위축으로 벌크상품 가격이 하락하여 원자재 원가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임. 7월 원가 지수는 113.2로 전월 대비 0.5 포인트 하락하였음
- 기업 운영자금 긴장 국면도 호전되었으며 보혜성 소기업 대출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7월 자금 지수는 100.8으로 임계점 100 이상으로 나타남
- 기업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으며 에너지, 금속 등 가격이 다소 하락하여 원가 상승추세가 둔화되었음. 7월 수익성 지수는 73.5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8/12/content_25933712.htm

6 中 소비자용 드론,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 점유

- 최근 선전시에서 개최된 '제7회 선전 국제드론전시회'에서 300여개 드론업체가 2,700여종의 드론과 무인장비를 전시하였음
-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산업용 드론은 의료지원, 안전검사 등 방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으며 드론 생산업체들은 시장 수요에 맞게 신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전시회 기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드론 업체는 1만 2,000개사로 생산 총액은 870억 위안(약 17조 원)을 달성하였음
- 선전시 드론협회 양진차이(杨金才)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산업용 드론 비중은 55%이고 일반소비자용 드론 비중은 무려 74%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음

자료원 : CCTV

<https://www.ithome.com/0/634/686.htm>

7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 중국내 점포 축소 추세

- 최근 코로나19 영향, 주요 소비자층 유실, 품질 미흡 등으로 Zara, H&M, GAP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중국시장을 점포를 축소하는 추세임
- 중국 시장에 진출한지 12년이 되는 GAP는 일부 도시의 쇼핑몰내 점포를 폐점한다고 밝혔음. 8월 11일, GAP의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검색 가능한 중국내 점포는 150개로 나타남
- GAP그룹의 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당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35억 달러로 순손실이 1.6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점포 축소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 앞서 2020년 GAP는 베이징시 왕푸징 APM, 시단(西单) 따웨청(大悦城), 인디고 등 여러 쇼핑몰내 점포를 폐점하였음
- 유니클로도 점포를 축소하는 추세로 2022년 반기재무제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과 이윤 감소로 잠정 133개 점포 운영을 중단하였음

자료원 : 중국신문망

http://www.ce.cn/cysec/newmain/yc/jsxw/202208/14/t20220814_37960859.shtml

8 中, 올해 상반기 산업용 규소 수출 12.6% 감소

- 중국 비철금속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산업규소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26.9% 증가한 144만 톤으로 집계됨
- 태양광 발전(PV) 산업 수요 증가로 중국내 소비량이 10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4.4% 증가하였음
- 한편 해관총서에 따르면 상반기 산업용 규소 수출량은 3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세를 보임

자료원 : 중국증권보

http://www.ce.cn/cysc/ny/gdxw/202208/05/t20220805_37939400.shtml

9 中, 올해 상반기 비철금속 생산량 안정세 유지

- 올해 상반기 중국내 비철금속 생산량은 안정세를 유지했고 가격은 2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으며, 주요 비철금속 수출입 물량과 가격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음
- 상반기 10종 비철금속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3,283만 톤이며, 이 중 구리, 알루미늄, 납 생산량이 각각 2.5%, 0.7%, 3.1% 증가하고 아연 생산량이 1.7% 감소함. 신에너지차 산업의 빠른 발전에 따라 니켈, 리튬염 생산량이 각각 6.9%, 38% 증가함. 상하이강련(上海钢联)에 따르면 6월 말 구리, 알루미늄 재고는 각각 11.4만 톤, 75.1만 톤으로 연내 최고치보다 각각 49.1%, 36.4% 하락함
- 비철금속 가격을 보면 상반기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코발트, 리튬의 평균 가격은 톤당 각각 7만 1,750위안(약 1,390만 원), 2만 1,435위안(약 415만 원), 2만 6,012위안(약 504만 원), 20.6만 위안(약 3,991만 원), 51.4만 위안(약 9,959만 원), 45.3만 위안(약 8,777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7%, 23%, 15.1%, 57.0%, 48.5%, 45.4% 증가하였음. 2분기 글로벌 유동성 부족, 다운스트림 수요 부진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 주요 제품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 6월 30일 기준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코발트 가격은 올해 최고치보다 각각 15.2%, 19.4%, 15.9%, 44.2%, 32.5% 하락하였음
- 수출 분야를 보면 상반기 미단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재 수출은 35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했고 수출액은 144억 달러로 72.4% 증가함. 수입 분야 보면 구리 정광 수입은 1,24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했고 수입액은 314억 달러로 13.6% 증가함. 미단조 구리 및 구리재 수입은 29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했고 수입액은 298억 달러로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산업경제정보망

<http://www.cinic.org.cn/hy/js/1337444.html>